

GILLETTE & L'ORÉAL, WOMEN USA

VOL. III

Kentucky • Louisiana • Maine • Maryland
Massachusetts • Michigan • Minnesota • Mississippi



FERDINANDO FREGA

GILLETTE & L'ORÉAL, WOMEN USA — VOL. III

L'ORÉAL THROUGH GILLETTE · 08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
소타, 미시시피. 미국 횡단의 세 번째 구간, 오하이오 계곡에서
삼각주까지.

제0장 — 공통의 서장

이 첫 장은 미국의 여성들 시리즈 여섯 권 모두에 공통으로 실린
장이다. 여기에 전문을 신뢰, 시리즈를 반복 없이 차례로 읽을 수
있도록 접어 두었다.

제0장

이곳에서 세상은 영토가 아니다: 한계다. 북극은 반기지 않고, 용서
하지 않으며, 실수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하양은 절대적인 존재
로 군림한다, 말없이, 기억도 없이. 기온은 기상 정보가 아니다: 포
식자다. 밤은 몇 달 동안 이어지며 생각을 짓누르고, 사람들의 윤
곽을 일그러뜨리고, 그들의 의지를 삼킨다.

공동체는 몇 되지 않고, 작고, 닫혀 있다. 이누이트, 유픽, 북극의
민족들은 아무도 머물기를 택하지 않을 곳에서 산다. 이곳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집단의 생존에 꼭 필요하다. 쓸모가 없으면 짐
이 된다. 그리고 짐이 된 사람들은 침묵 속으로, 눈 속으로, 아무것
도 양보하지 않는 환경의 논리 속으로 사라진다.

과학 기지는 또 다른 종류의 냉기를 더한다: 위계의 냉기다. 이곳
에서 여자는 드문 존재, 적응하거나 무너져야 하는 변칙이다.

이곳에는 '실종'이라는 개념이 없다. 모든 것을 지우는 하양만 있을 뿐이다.

이누이트와 유픽의 여자들

북극의 소녀는 귀하게 자라지 않는다: 준비된다. 일찍부터 추위와 어둠과 굶주림을 견디는 법을 배운다. 씨족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곳에서 정체성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능적인 것이다. 여자는 가족과 공동체의 짐을 진다: 음식, 불, 아이들, 가족, 돌봄. 아무도 권리를 말하지 않는다. 아무도 연약함을 말하지 않는다. 우울은 존재하지만 이름이 없다. 폭력은 존재하지만 증인이 없다.

과학 기지의 여자

교육받았고, 유능하고, 규율에 익숙하다. 그녀는 연구원으로, 기술자로, 의사로 도착한다. 그리고 곧 북극이 자격증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곳에서는 정신의 강인함만이 중요하다. 남자들의 위계가 그녀를 지배하고, 약해 보이는 어떤 기색도 나약함으로 해석된다.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환경이다: 극도의 자제력이 요구된다.

서구에서 온 '바깥'의 여자

자유 속에서 자란 그녀는 추위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도착한다. 그러나 이곳은 그녀를 부순다: 고독, 비좁은 공간, 끝없는 침묵. 기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계 장치다. 그리고 남자들이 설계한 기계 장치 안에서 여자는 사라지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한다.

세상 끝으로 가는 여행

이웃인 Antonio, 다들 Nino라고 부르는 그는 몇 년째 노르카프와 백야, 어둠이 없는 몇 달 이야기를 했다. 주머니 속에 넣어 둔 꿈, 불가능한 무언가 같은 것이었다. 5월의 어느 아침, 나는 그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이 말만 했다. "여행 가방 싸요. 한 시간 뒤에 다시

올게요. 30일 뒤에 돌아올 거예요.” 그는 놀라서, 기뻐서 나를 바라 보았다. 걱정이 된 그의 아내가 우리 계획이 뭐냐고 물었다. “꿈을 쫓는 거죠.”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차에 올랐다. 아내들은 미친 사람 보듯 우리를 보았다. 하지만 이 여행은 진짜였다. Nino는 벌써 질문투성이였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돈은 얼마나 가져가야 해요?” “진정해요.” 내가 말했다. “54시간이면 도착해요. 고작 5,000km예요. 새 Range Rover를 타고 가잖아요. 드라이브를 즐겨요.”

300km마다 멈춰야 했다: 나보다 열두 살 많은 그에게는 그만의 리듬이 있었다. 나는 물과 마실 것을 챙겼고, 그는 커피와 생리적인 불일을 챙겼다. 그리고 멀리 갈수록 그는 자기 인생 이야기를 더 많이 했다. 그 끝없는 길이 아니었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것들이었다.

차 안에 단둘인 남자 두 명은 언제나 여자 이야기를 한다. 그는 평생 아내 한 사람밖에 몰랐다. 나는 웃었다. 그를 안심시켰다. “우리도 다 그래요.”

그는 60시간을 운전하면서 어떻게 제정신을 유지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러시아 이야기를 했다, 스물두 살 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여자를 만나러 51시간을 운전했던 일을. “거리는 한계가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핑계일 뿐이죠. 나는 핑계를 가져 본 적이 없어요.”

하얀 세계에 도착하다

우리는 노르웨이에 들어섰다. 길가의 숙소 하나. 차는 거기 두고 썰매로 계속 갈 참이었다.

가이드는 온몸을 감싸고 있어 속을 알 수 없었다. 그녀가 고글을 벗었을 때에야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 노르웨이 여자, 말이 없고, 단도직입적이고, 얼음 같았다. Nino는 썰매 가운데, 그녀는 앞, 190cm의 나는 뒤에서 맨 끝을 맡았다.

아직 낮이었다. 시계는 시각을 알려 주었지만, 밤인지 아침인지는 알려 주지 않았다. 백야였다. 우리는 노르카프에 도착해 있었다.

Nino는 울었다. 나를 끌어안았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조심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게이로 알겠어요.” 우리는 웃었지만, 우리는 세상의 끝에 있었다.

그리고 혹한이 찾아왔다: 영하 52도.

진짜 북극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옷을 갈아입으라고 우리를 금속 컨테이너로 데려갔다. 지독하게 무겁고 숨을 두른 방한복, 복잡한 지퍼로 여미는 옷이었다.

나는 가이드 비용을 냈다. Nino는 남자 몇 명과 함께 이글루 하나에 남겨졌고, 나는 다른 이글루에 한 가족과 함께 남겨졌다: 일흔에서 여든 사이의 노인 한 명과 서른에서 쉰 사이의 여자 세 명.

단한 세계였다. 단순했다. 잔혹했다.

남자는 한쪽에 물러나 있었다. 여자들이 일의 박자를 이끌었다. 그리고 화장실은 이글루에서 5미터 떨어진 언덕이었다: 똥은 땅에 닿기 전에 얼어 버렸다. 나의 첫 오줌은 노란 북극의 별이 되었다. 북극이 내게 건넨 인사였다.

중년의 여자 Magi는 영어를 조금 했다. 나머지는 몸짓, 눈빛, 손이었다. 추위의 언어.

방한복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자,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사타구니를 만져 숨은 지퍼를 보여 주었다. 악의도, 부끄러움도 없었다: 기능일 뿐이었다. 생존.

이글루에서의 사흘

그들은 음식을 가져왔다. 훈제 생선, 날생선, 대구 간, 고래 뱃살. 그리고 상어 완자. 선택은 없었다. 대안도 없었다. 자연이 내주는 것이 전부였다.

그다음 나는 마셨다: 붉은 액체를. 와인인 줄 알았다. 거르고, 끓이고, 달게 만든 고래 피였다. 나는 그것을 마셨다. 그것은 한 번도 느껴 본 적 없는 힘을 주었다. 원초적인 에너지. 코카인인 줄 알았다. 아니었다. 몸속으로 들어오는 북극이었다.

여자들은 나를 지켜보았다. 노인은 사냥하러 나갔다. 나는 쉬면서 피를 마셨다. 전화도, 인터넷도, 컴퓨터도, Nino도 없는 사흘. 나와 그들뿐이었다.

밤은 없었다. 빛과 불과 얼음과 숨결만 있었다.

세 여자가 잠자리에 누웠다. 나는 자리를 찾았다. 가장 젊은 여자가 팔을 들어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영문을 몰랐다. 그들은 내가 자기들의 '크리스마스'라고 했다.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뜻이었다.

고맙다는 뜻으로 돈을 좀 건네려 했다. 그들은 거절했다. 그저 포옹을 원했다. 그리고 더 가깝게 느끼도록 칼라브리아 말 몇 마디를.

거기서 나는 진짜 선물의 가치를 깨달았다: 사고팔 수 없는 선물.

가이드의 작별

사흘 뒤 가이드가 왔다. 그녀는 세 여자와 한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나는 밖에 있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언어, 그들의 세계, 그들의 법이었다.

컨테이너에서 내가 옷을 벗고 있는데 가이드가 들어왔다. 호기심 어린 채. 단도직입적으로. 북유럽 사람답게. 그녀는 나를 꼭 끌어안았다. 내게 입을 맞추었다. 그녀의 피부는 우유처럼 하얗다. 그녀의 눈은 8월의 하늘처럼 파랬다.

그녀는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했다. 그 세계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했을 것이다.

나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는 안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약속 하나만 남겼다. "필요한 게 있으면 편지를 써요. 도와줄게요." 그녀는 돈마저 거절했다. 아름다운 여자였지만, 외로웠다. 멀리서는 보이지 않는 외로움. 추위가 용서하지 않는 외로움.

집으로 돌아오다

우리는 Nino를 데리러 갔다. 그는 신이 나 있었다.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아내와 약속이 있었다.

그는 모두에게 자기의 사할 이야기를 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 남자와 아무것도 나누지 않았다. 오직 종이와만 나누었다.

그렇게 Nino가 자기 세계로 돌아가는 동안, 나는 이미 다른 세계로 가는 길 위에 있었다. 또 다른 목적지. 또 다른 만남.

환영한다.

에필로그

북극은 당신을 데려가지 않는다: 당신을 바꾼다. 그리고 결코

당신을 온전히 돌려주지 않는다. 남자들은 빛과 침묵과 사진과 꿈을 찾아 북극에 온다. 여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머문다.

남자들은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한다. 여자들은 자기가 겪은 것에 대해 침묵한다.

남자들은 돌아간다. 여자들은 남는다. 추위 속에, 눈으로 지은 집 속에, 아무도 듣지 않는 침묵 속에 남는다. 자신들을 기리지 않는 공동체를 떠받치기 위해 남는다. 아이들과 노인들과 낯선 이들을 지키기 위해 남는다. 보이지 않는 채로 남는다.

나는 그곳에서 단 하나의 기억만 가지고 왔다: 아름다운,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러나 혼자인 여자. 낭만적인 의미가 아니다.

인간적인 의미에서. 비극적인 의미에서.

성찰

북극은 몸을 죽이지 않는다. 존재를 죽인다. 그리고 남는 것은 하양이다: 여자들이 살아가는 동시에 사라지는 곳.

그래서 나는 쓴다. 극한의 장소들은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침묵하는 사치를 누릴 수 없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의 땅이 나를 낳았고, 나머지 세상은 나를 손님이 아니라 가족의 한 사람으로 맞아 준다.

북극의 절대적인 하양에서, 나는 미국의 절대적인 혼란 속으로 내려갔다.

미국

불가능한 임무

미국 회사에서 18년을 일하면 세상 어떤 회사도 줄 수 없는 것을 얻는다: 일의 문화, 절차, 분명한 사명, 그리고 이론이 아닌 가치 체계—그것은 매일의 실천이다. 그들은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 당신 안에 지어 준다. 그리고 당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

뉴욕 사무소에 있을 때,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을 제안받았다. 승진이 아니었다. 전근도 아니었다. 실험이었다.

미국 안에서 인간관계의 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만든 비밀 프로그램. 그들은 매니저도, 심리학자도, 트레이너도 고르지 않았다. 현실 세계에서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골랐다. 그리고 내 이름이 나왔다—영업에서 18년을 보낸 나였는데도. 그들은 직책을 보지 않았다: 머리를 보고 있었다.

시험은 설명하기는 간단했고 해내기는 극도로 어려웠다:

1년 동안 미국의 50개 주를 방문할 것, 도시는 직접 고르고 각 도시에 적어도 일주일의 머물 것.

마지막 2주는 강제 휴가였다. 모든 비용은 그들이 낼 것이었다. 나는 그저 살고, 관찰하고, 이해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었다. 인간적이고, 건조하고, 정확한 기록을.

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집에 알렸다. 집에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매달 오는 생필품이 도착했는지만 알고 싶어 했다. 나는 미국에서의 1년을 맞으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처럼, 다음 달을 맞으려 하고 있었다.

만일을 위해 내 급여는 이탈리아의 내 은행 계좌로 곧장 입금되었다. 그것은 내게 이렇게 말하는 정중한 방식이었다.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 가진 것으로 살아라. 네가 정말 누구인지 보자.”

15년이 지나서야 나는 나의 원래 보고서들과 분석들, 그들이 나에게 대해 모아 둔 자료를 볼 수 있었다. 이 책은 거기서 태어났다. 나는 이 책을 출간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 단 하나의 조건으로: 이 일을 의뢰한 회사의 이름을 절대 밝히지 말 것.

상관없다. 이 이야기는 로고에 관한 것이 아니다. 직접 겪어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나라에 있는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다.

가장 먼 곳에서 시작할까?

논리적인 선택은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유는 간단히 두 가지였다:

1. 나는 실험을 막 시작한 참이었다: 정신은 맑고, 주의력은 최대였다.
2. 극단에서 시작하면 진로를 바로잡으며 여행을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다.

보스턴이나 시카고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었다. 국경에서 시작해야 했다. 서류상으로만 미국인 곳에서.

나는 알래스카의 주도 주노를 골랐다. 고립된 곳. 배나 비행기로만 닿을 수 있는 곳. 누구의 것도 아닌 도시. 출발하기에 완벽한 곳.

자원을 최적화하라

떠나기 전, 나는 미국인이 무엇보다 존중하는 일을 했다: 관광객이 아니라 프로처럼 준비를 갖춘 것이다.

국내 노선망이 가장 넓은, 가장 인기 있는 항공사 세 곳에 전화했다. 한 시간도 안 되어 60% 할인된 국내선 항공권 50장 묶음을 샀다.

기간 제한 없음. 날짜 제한 없음. 제약 없음. 조건은 단 하나: 1년 안에 쓸 것.

호텔 체인, Uber 택시, 렌터카 회사와도 똑같이 했고, 그런 다음 일정표를 제대로 짰다, 구간과 방식은 정하되 시간은 정하지 않은 일정표를.

나는 준비가 되었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진짜 성공이었다. 내가 움직일 줄 안다는 첫 번째 증거였다. 미국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에게 보상한다.

회사가 그 거래를 보았을 때, 그들은 미국 문화가 언제나 하는 일을 했다: 신뢰도를 확인한 것이다.

나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1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예상치 못한 일, 거리, 비상사태를 처리할 수 있는가? 나는 독립적인가?

그래서 떠나기 전, 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세부 사항을 정리해 두었다:

신용카드의 월 한도를 최소 10만 달러로 확보해 둔 것이다.

쓰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인은 이렇게 생각한다: 자율이 없으면 자유가 없다. 그리고 자유가 없으면 평가받을 수 없다.

그 순간부터 프로그램은 더 이상 과제가 아니었다. 사명이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여행한다

알래스카는 지리상으로만 미국의 일부다. 그곳은 또 다른 세계다.

여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곳이다. 신고가 결코 목적지에 닿지 않는 곳. 도시들이 야생의 대륙 한가운데 떠 있는 문명의 섬에 불과한 곳.

주노는 나의 첫 시험이었다: 나라의 다른 곳과 이어지는 도로가 하나도 없는 주도. 미국처럼 느껴지지 않는 미국의 한 조각.

여기서 나는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여행은 지리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 인간적인 것일 것이다.

블록 1 (제1권)

앨라배마 – 알래스카 – 애리조나 – 아칸소 – 캘리포니아 – 콜로라도 – 코네티컷 – 델라웨어 – 플로리다 – 조지아

블록 2 (제2권)

하와이 – 아이다호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아이오와 – 캔자스 – 켄터키 – 루이지애나 – 메인 – 메릴랜드

블록 3 (제3권)

매사추세츠 – 미시간 – 미네소타 – 미시시피 – 미주리 – 몬태나 – 네브래스카 – 네바다 – 뉴햄프셔 – 뉴저지 – 뉴멕시코

블록 4 (제4권)

뉴욕 – 워싱턴

블록 5 (제5권)

노스캐롤라이나 – 노스다코타 – 오하이오 – 오클라호마 – 오리건
– 펜실베이니아 – 로드아일랜드 – 사우스캐롤라이나

블록 6 (제6권)

사우스다코타 – 테네시 – 텍사스 – 유타 – 버몬트 – 버지니아 – 웨
스트버지니아 – 위스콘신 – 와이오밍

켄터키

켄터키는 두 개의 차원에 존재하는 주다: 표면은 탄광과 위스키와
말과 푸른 언덕으로 덮여 있고, 깊은 곳은 오래된 가난, 고립된 공
동체, 경직된 종교, 드문 기회로 이루어져 있다.

더 이상 농촌은 아니지만 아직 현대적이지도 않은 땅이다. 멈춰 있
다. 느리다. 지쳐 있다. 그리고 땅이 멈춰 있을 때, 그것을 떠받치는
것은 여성들이다.

켄터키에서 여성은 어떤 사건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대대로 그
녀에게 자기희생을 요구해 온 사회적 유산 때문에 사라진다. 가족,
아이들, 불안정한 일, 교회, 이웃, 남들의 문제: 모든 것이 그녀들의
어깨 위에 있다. 그녀의 부재는 소음이 아니다. 무게다.

옛 탄광 지대의 여성 – 41

세

석탄이 켄터키를 세웠고, 또 무너뜨렸다. 광산이 문을 닫고, 남자들
은 일자리를 잃고, 약물 의존이 늘고, 가난이 번진다.

이곳의 여성들은 그 뒷감당을 떠받치고 있다. – 일자리 없는 남편
들 – 좌절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 – 지독히 낮은 임금 – 친구와 친
척을 덮치는 약물 과다 복용 – 분노로 들끓는 공동체.

그녀들은 가게에서, 학교에서, 서비스 업체에서, 돌봄 노동자로 일한다. 무너진 경제 체제가 더 이상 하지 않는 모든 일을 그녀들이 한다.

그녀의 부재는 사회적이다: 그녀가 여성이 아니었다면 주는 무너졌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알아주지 않는다.

더비와 말 사육장의 여성 - 36세

켄터키는 말과 더비로 유명하다. 그 우아한 이미지 뒤에는 마구간을 청소하고, 말을 다루고, 새벽 근무를 서고, 터무니없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여성들의 군대가 있다.

화려함은 앞에 있다. 땀은 뒤에 있다.

그녀의 부재는 경제적이다: 그녀 없이는 산업이 돌아가지 않지만, 그녀는 대중과 정치인이 외면하는 톱니바퀴로 남는다.

종교에 갇힌 여성 - 48세.

켄터키의 많은 카운티에서는 교회가 주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여성은 이래야 한다: - 어머니 - 아내 - 도덕적인 인물 - 존경받을 만한 존재 - 공동체에 순종하는 사람.

그녀는 자기 역할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자신을 새로 만들 수 없다. 의심이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없다.

그녀의 부재는 문화적이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 그 고장의 종교적 서사에 속한다.

최저 일자리의 여성 - 29세

켄터키는 저임금 일자리로 굴러간다. 그리고 그 일자리는 모두 여성들의 몫이다.

계산원, 웨이트리스, 바닥 청소부, 요양원 직원, 학교 보조원. 불안정한 교대 근무, 비싼 기름값, 키워야 할 아이들, 그리고 전망 제로에 소진되는 삶들.

그녀의 부재는 경제적이고 정신적이다: 그녀는 빠져나갈 길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그 길을 내밀지 않는다.

에필로그 - 켄터키

켄터키는 전통과 가난과 종교와 고난의 모자이크다. 여성들은 그 척추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그녀들은 보이지 않게 된다.

이곳에서 부재는 집단의 습관이다. 삶의 방식이다. 한 번도 의문에 부쳐지지 않는 잘못된 정상이다.

성찰 - 켄터키

주마다 부재의 다른 얼굴을 보여 준다. 켄터키가 보여 주는 것은 경제의 붕괴와 과거에 매달린 전통에서 태어난 얼굴이다.

이곳에서 여성은 남자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 종교가 강요하는 모든 것, 가난이 굳혀 놓은 모든 것을 떠받친다.

그녀는 가장 강한 고리인데, 가장 약한 고리처럼 취급된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이 주는 이 책에 꼭 필요하다: 한 사회가 모든 것을 여성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그것이 정상인 양 행동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 주기 위해.

루이지애나

루이지애나는 격렬한 대비의 주다. 문화이고, 음악이고, 역사이고, 음식이고, 영성이고, 정체성이다. 그러나 가난이기도 하고, 불안정이기도 하고, 중독, 인종 불평등, 파괴적인 허리케인, 무질서한 정치, 허약한 사회 체제이기도 하다.

아름다움이 추함과 균형 없이 공존하는 곳이다. 이곳의 모든 것에는 두 얼굴이 있다: 뉴올리언스는 축제이자 트라우마이고, 배턴루지는 정치이자 쇠퇴이며, 농촌의 패리시들은 공동체이자 고립이다.

루이지애나의 여성은 우연히 사라지지 않는다. 불안정한 땅에서 유일하게 안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라진다. 그리고 그 안정이 그녀를 소진시킨다.

그녀의 부재는 세 가지 무거운 요인의 결과다: – 뿌리 깊은 가난

–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환경 재난

– 가혹한 문화적 가부장제.

이곳에서 여성들은 가족을, 동네를, 공동체 전체를 이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는 동안, 그녀는 희미해진다.

뉴올리언스의 여성 – 35세

뉴올리언스는 음악이고, 축제이고, 혼돈이고, 역사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가장 복잡하고 힘겨운 도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은 세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산다: – 약탈적인 관광 – 도시의 폭력 – 불안정한 경제

일하는 곳: – 바 – 호텔 – 레스토랑 – 관광 투어 – 공공 서비스 – 라이브 음악 – 밤의 유흥

의무적인 미소. 낮은 임금. 높은 집세. 진상 손님. 녹초가 되는 근무 시간.

그녀의 부재는 도덕적이다: 도시는 그녀의 에너지를 쓰고, 탈진한 채로 돌려준다.

모두가 뉴올리언스의 “마법”을 원한다. 그 마법을 만드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다.

가난한 패리시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

42세 뉴올리언스 밖에는 가난한 농촌 루이지애나가 펼쳐진다. 작은 집들, 부실한 학교, 최소한의 서비스, 터무니없는 임금. 이곳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은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낸다: - 노동자 - 어머니 - 공동체의 사회적 기둥.

그녀는 일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일한다: - 요양원 - 편의점 - 패스트푸드 주방 - 청소 - 비공식 돌봄.

그녀 없이는 공동체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녀는 낮은 임금, 만성적인 스트레스, 부족한 의료, 그리고 늘 곁에 있는 가정 폭력과 함께 산다.

그녀의 부재는 역사적이다: 대대로 그녀를 언제나 사회의 사다리 맨 아래에 놓아 온 바로 그 구조에서 내려온 것이다.

허리케인에서 살아남는 여성 - 39

세

루이지애나에는 "안정된" 삶 같은 것이 없다. 허리케인이 모든 것을 바꾼다: 무너진 집, 잃어버린 일자리, 흩어진 가족, 사라진 추억.

여성은 이런 사람이다: - 아이들을 대피시키는 사람 - 서류를 지키는 사람 - 물에 잠긴 집을 치우는 사람 -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 - 늦게 지급하거나 끝내 지급하지 않는 보증을 처리하는 사람 - 속으로는 무너지면서도 가족을 진정시키는 사람.

남자들에게 재건은 육체적인 일이다. 여성들에게는 심리적인 일이다. 해마다.

그녀의 부재는 환경적이다: 폭풍이 올 때마다 그녀의 에너지가 한 조각씩 떨어져 나가, 마침내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아무도 그것을 그녀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무거운 전통의 여성 - 51세

루이지애나는 강하고, 뿌리 깊고, 거의 신성한 전통으로 살아간다.

여성은 이래야 한다: - 완벽한 어머니 - 집안의 중심인물 - 대가족의 주춧돌 - 교회의 한 자리 - 노인을 돌보는 사람 - 어린아이들의 길잡이 - 모든 것을 떠받치는 구조물.

오래된 역할이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녀는 가족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말대꾸할 수 없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다. 죄책감 없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없다.

그녀의 부재는 문화적이고 정서적이다: 모두를 떠받치느라 너무 바빠서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서 사라진다.

에필로그 - 루이지애나

루이지애나는 아름다움과 아물지 않은 상처가 뒤섞인 곳이다. 그리고 이 일상의 혼돈 한가운데서 여성들이 모든 것을 붙들고 있다: 가족, 일, 공동체, 전통, 정서적인 생존.

그녀들의 부재는 역설이다: 더 많이 할수록 덜 보인다.

루이지애나는 여성을 단 하나의 힘으로 지우지 않는다. 천 개의 작은 일상의 힘으로 지운다: 가난, 허리케인, 관광, 인종의 역사, 가족안의 역할, 지원의 부재.

느리고, 깊고, 소리 없는 지움이다.

성찰 - 루이지애나

주마다 부재의 다른 형태를 보여 준다. 루이지애나가 보여 주는 것은 이런 것들이 낳은 부재다: - 자연재해 - 사회적 재난 - 가족의 재난.

여성이 모두를 위해 살아남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해 살아남지 않는 주다.

트라우마가 일상이 되고, 일상이 정체성이 되는 주다.

루이지애나는 여성의 부재가 가난이나 권리의 결핍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너무 깊어서 이제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피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장은 결정적이다: 뉴올리언스의 엽서 한 장 한 장 뒤에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붙들고 있는 여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메인

메인은 미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친 주 가운데 하나다. 끝없는 숲, 차가운 해안, 등대, 어촌, 그리고 거대한 침묵. 낭만적인 땅이지만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그렇다. 거기 사는 사람에게는 순수한 고립이다.

인구는 드물고, 거리는 멀고, 겨울은 몇 달씩 이어지고, 기회는 적다. 메인은 당신을 공격하지 않는다: 당신을 소진시킨다.

이곳의 여성들은 세 가지 이유로 사라진다: – 지리적인 고독 – 불안정한 계절 일자리 – 변화를 질식시키는 작은 공동체. 자연이 지배하고 인간이 적응하는 주다. 언제나. 지나치게.

메인의 여성은 충격으로 쓰러지지 않는다. 반복으로 쓰러진다.

어촌의 여성 – 39세

메인의 해안은 어업으로 살아간다: 바닷가재, 대구, 짧은 어기, 고된 노동.

이곳의 여성은 배가 하지 않는 모든 일을 맡는다: – 조율 – 손봐야 할 그물 – 판매 – 집안 회계 – 가족 – 집 – 갑작스러운 비상사태.

바다는 멀리서 보면 아름답다. 가까이서 보면 용서 없는 주인이다.

그녀의 부재는 경제적이면서 육체적이다: 그녀는 벌이가 날씨와 계절과 운에 달린 업종에서 산다. 그리고 계절이 끝나면 안전도 끝난다.

긴 겨울을 사는 여성 - 52

세

겨울의 메인은 하나의 벽이다: 눈, 흑한, 어둠, 끝없는 침묵.

내륙—밀리노킵, 그린빌, 호수 지대—의 여성들이 마주하는 것: – 진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몇 달– 위험한 도로– 외딴 집– 부족한 의료– 널리 퍼진 계절성 우울증– 꼭 필요한 서비스와의 먼 거리

아프면 그녀는 기다린다. 의사가 필요하면 몇 시간을 운전한다. 감정적으로 무너져도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한다. 그녀의 부재는 지리적이다: 그녀는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라진다.

계절 일자리의 여성 - 28세

여름이면 메인은 폭발한다: 관광, B&B, 레스토랑, 크루즈.

이곳의 여성은 쉬지 않고 일한다: – 서빙 – 청소 – 요리 – 손님맞이 – 관리 – 정리.

고되고, 보수가 낮고, 불안정한 일이다. 석 달 가고, 그다음엔 아무 것도 없다.

정신없이 바쁜 시간에서 텅 빈 몇 주로 넘어간다. 빠르게 들어오는 돈에서 버티기만 하는 몇 달로 넘어간다.

그녀의 부재는 경제적이다: 그녀는 늘 두 계절 사이에 살지만, 어느 계절에도 속하지 않는다.

작은 공동체의 여성 - 46세

메인의 작은 마을들은 닫힌 공동체다: 모두가 모두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아무도 정말로 변하지 않는다.

이곳의 여성은 반듯해야 한다: - 어머니 - 안정된 노동자 - 믿을 만한 존재 - 그 고장의 기준에 맞는 '좋은 사람'.

그녀는 자신을 새로 만들 수 없다. 쉽게 직업을 바꿀 수 없다. 손가락질받지 않고는 공동체를 떠날 수 없다.

그녀의 부재는 문화적이다: 그녀는 자기 자신보다 그 땅에 더 속해 있다. 그녀는 악의가 아니라 습관의 포로다.

에필로그 - 메인

메인은 침묵 속에서 당신을 지켜보는 주다. 그리고 침묵은 지나치면 짐이 된다.

이곳의 여성들은 거리 속으로, 계절 속으로, 되풀이되는 역할 속으로, 불안정한 일자리 속으로, 닫힌 마을 속으로, 긴 겨울 속으로 사라진다.

부재는 눈에 띄지 않는다. 피부 밑에 있다.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메인은 때리지 않는다. 그냥 놓아 버린다.

성찰 - 메인

주마다 부재의 한 형태를 드러낸다. 메인이 드러내는 것은 지리에서 태어난 부재다:

땅이 아름다울수록, 거기 사는 사람에게는 더 힘들다.

이곳에서 여성은 갈등으로 지워지지 않는다. 고요로 지워진다. 반복으로. 거리로. 결코 지나가지 않는 추위로. 줄어드는 삶으로.

메인은 한 가지를 가르쳐 준다: 여성의 부재는 하나의 풍경일 수도 있다. 하나의 지도. 끝나지 않는 계절.

그래서 이 장은 꼭 필요하다: 미국은 폭력이나 혼돈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을 소진시키는 침묵이기도 하다.

메릴랜드

메릴랜드는 사람을 속이는 주다. 작고, 대서양에 면해 있고, 워싱턴에 가깝다. 겉은 우아하고, 속은 복잡하다.

둘로 갈라진 땅이다: –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고, 보호받고, 질서 정연한 교외 – 범죄와 방치의 흔적이 새겨진, 힘겹고 가난한 도시.

미국에서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주 가운데 하나이면서, 동시에 불평등이 가장 뚜렷한 주 가운데 하나다.

이곳의 여성들은 한 가지 이유로 사라지지 않는다. 적응해야 하는 세계가 너무 많아서 사라진다: 대도시, 교외, 정치, 의료, 도시의 가난, 인종 정체성.

메릴랜드에서 여성의 부재는 여러 겹이다.

우편번호에 따라 달라진다.

볼티모어의 여성 – 34세

볼티모어는 미국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 가운데 하나다: 뿌리 박힌 가난, 높은 범죄율, 사회적 고립, 과부하에 걸린 서비스, 위기에 처한 학교.

이곳에서 여성들은 모든 것을 붙들고 있다: – 아이들 – 불안정한 일 – 위험한 동네 – 감당할 수 없는 생활비 – 느린 교통 – 진짜 보호의 부재.

그녀는 일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일한다: 슈퍼마켓, 클리닉, 지원 센터, 패스트푸드 식당, 요양원, 청소. 그녀의 부재는 도시적이다: 도시는 '재개발'을 말하지만 결코 그녀의 삶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그녀는 노동력으로 쓰일 때만 시스템의 눈에 보인다. 그녀의 권리를 인정해야 할 때는 사라진다.

부유한 교외의 여성 - 42세

메릴랜드의 부유한 쪽은 완벽하다: 영화에 나올 법한 집, 높은 소득, 명문 학교, 야심 찬 경력, 잘 짜인 가족.

이곳의 여성은 다른 이유로 사라진다: 완벽함의 압박.

경쟁적인 환경이라 여성의 역할은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한다: - 가족의 전면적인 관리 - 높은 사회적 이미지 - 완벽한 아이들 - 의무적인 자원봉사 - 결코 배우자를 '가려서는' 안 되는 부업이나 경력.

그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결코 피로를 내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환경 속에서 산다.

그녀의 부재는 정체성의 문제다: 공동체는 그녀를 사람이 아니라 역할로 여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중부

회랑 - 45세 메릴랜드에는 미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있다.

이곳의 여성들은 사회의 원동력이다: - 의료계에서 일하고 - 학교에서 일하고 - 사무실과 공공 행정을 이끌고 - 대가족을 하나로 묶고 - 공동체 전체를 떠받친다. 그러나 그녀는 이중의 짐을 지고 산다: 인종과 성별.

그녀는 모든 것을 한다. 모든 것을 붙든다. 어디에나 나타난다. 그러나 그녀의 말을 들어 주는 일은 드물다.

그녀의 부재는 정치적이다: 그녀는 결정이 내려지는 테이블에 앉지 못한 채 주를 떠받친다.

의료계에서 일하는 여성 - 37세

메릴랜드는 워싱턴과 가깝고 큰 지역 병원들이 있어서, 여성 의료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주 가운데 하나다.

이곳의 여성들은 요구를 멈추지 않는 시스템 안에서 산다: – 끝없는 교대 근무 – 과부하에 걸린 병동 – 되풀이되는 응급 상황 – 지극히 무거운 책임 – 부족한 심리적 보호 – 정서적 충격을 보상하지 못하는 급여.

모두를 치료하는 사람은 그녀다: 노인, 아이들, 만성 질환자, 도시의 응급 상황, 환경 재난.

그녀의 부재는 업무적이다: 그녀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지만, 보건 정책 결정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가볍다.

에필로그 – 메릴랜드

메릴랜드는 극명한 대비 위에 세워진 주다: 극단적인 부와 극단적인 가난, 막강한 정치와 버려진 동네, 화려한 경력과 최저 일자리. 이곳의 여성들은 이 모든 모순을 동시에 겪는다. 메릴랜드의 지역마다 지움의 형태가 다르다: 도시적, 사회적, 정체성의, 인종적, 그리고 건강의 지움.

그녀들의 부재는 집단적인 결과다: 주가 돌아가는 것은 그녀들이 버티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그녀들은 보이지 않는다.

성찰 – 메릴랜드

주마다 여성의 부재에 대한 저마다의 미묘한 이야기를 드러낸다. 메릴랜드가 드러내는 것은 가장 복잡한 이야기다: 여성은 사회의 모든 층위에 존재하지만, 바로 시스템이 모양을 갖추는 곳에서 무시당한다.

이곳에서 여성은: – 부유한 교외의 척추– 흑인 공동체의 엔진– 의료의 제공자– 가난한 동네의 생존이다.

그런데도 그녀는 정치적인 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전략의 중심에 놓이지 못하며, 보호받지 못한다.

메릴랜드에서 부재는 가난도 고독도 아니다. 불균형이다: 여성들은 주가 돌려주는 것보다 더 많이 준다.

그래서 메릴랜드는 이 책 안에 자리를 차지한다.

매사추세츠

매사추세츠는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주 가운데 하나다. 명문 대학, 세계적인 병원, 연구소, 기술, 혁신. 밖에서 보면 이 나라에서 가장 앞서 있고 가장 “올바른” 곳 가운데 하나처럼 보인다: 높은 교육 수준, 높은 소득, 현대적인 정책, 빈틈없는 서비스.

그러나 진실은 더 복잡하다.

매사추세츠는 두 개의 속도로 움직이는 땅이다: – 지식의 회로에 속한 사람들 – 그 문 밖에 남은 사람들.

진보를 말하는 주이지만, 엄청난 문화적 압박 속에서 산다. 그리고 그 압박이 여성의 존재를 천천히 짓누른다.

이곳의 여성들은 무언가가 모자라서 사라지지 않는다. 기대가 넘쳐서 사라진다: 경력, 가족, 높은 기준, 한결같은 성과, 완벽한 사회적 모델.

매사추세츠에서 여성의 부재는 현대적이고, 교양 있고, 세련되었다—그리고 파괴적이다.

명문 대학의 여성 – 33세

매사추세츠는 지구의 학문적 심장이다. 지식의 미래가 그 캠퍼스들 안에서 결정된다.

여성 연구자는 대단히 높은 역량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이런 것을 요구하는 시스템 앞에 서게 된다:

– 쉬지 않고 논문을 낼 것 – 보호받는 동료들과 경쟁할 것 – 학회, 세미나, 큰 행사를 열 것 – 늘 빛나는 이미지를 유지할 것 – 몇 년

동안 사생활을 포기할 것

환경은 진보적으로 보이지만, 권력의 자리는 여전히 남자들의 것이다. 연구하는 사람들은 탁월함의 공기를 들이마신다... 그리고 소모의 공기도.

그녀의 부재는 제도적이다: 그녀는 지식을 생산하지만, 지휘하는 일은 드물다.

청소와 급식 일을 하는 이주 여성 - 29세

그림 같은 캠퍼스 밖에서 매사추세츠는 이주민의 노동으로 굴러간다: 라틴계 여성, 아이티인, 브라질인, 카보베르데인, 아프리카인.

그녀들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 엘리트의 사무실을 청소하고 - 대학 식당에서 요리하고 - 호텔에서 교대로 일하고 - 보스턴 레스토랑의 주방을 맡고 - 노인을 돌보고 - 남의 아이들을 돌본다.

고된 삶, 낮은 벌이, 하늘을 찌르는 집세.

그녀의 부재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이다: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도시를 떠받치지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

클리닉과 병원의 여성 - 41세

매사추세츠는 첨단 의료의 중심이다. 큰 이름들 뒤에는 수천 명의 여성이 있다: 간호사, 기사, 병동 직원, 보조원, 지원 인력.

불가능한 교대 근무. 끊임없는 스트레스. 엄청난 책임. 다루기 힘든 환자. 지극히 높은 생활비. 부족한 휴식.

그녀의 부재는 업무적이다: 그녀는 미국 최고 의료의 엔진이지만, 시스템은 그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기능으로만 본다.

험한 동네의 여성 - 35세

부유한 캠퍼스와 교외 너머, 매사추세츠에는 언론에 보이지 않는 진짜 가혹한 가난이 있다.

이곳에 사는 여성이 마주하는 것: - 감당할 수 없는 집세 - 허약한 학교 - 널리 퍼진 폭력 - 모자란 서비스 - 불안정한 교통 - 저임금 일자리 - 구조적인 인종 차별.

그녀는 매일의 생존자다.

그녀의 부재는 도시적이다: 그녀는 매사추세츠의 '완벽한' 서사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은 그녀를 무시한다.

에필로그 - 매사추세츠

이 주는 명백한 역설이다: 교양이 높을수록 여성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더 기대한다.

이곳의 부재는 무지가 아니다. 과잉된 탁월함이다. 진화한 땅에서는 "모든 게 잘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모든 게 잘되지는 않는다.

여성들은 엄청나고 보이지 않는 짐을 진다: 학업의, 건강의, 가족의, 경제의 짐.

매사추세츠가 돌아가는 것은 그녀들이 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그녀들은 사라진다.

성찰 - 매사추세츠

주마다 다른 상처를 드러낸다. 매사추세츠가 드러내는 것은 그 문화 밑에 숨은 상처다.

이곳에서 여성은 기회가 모자라서 지워지지 않는다. 기회가 너무 많은데, 그 기회와 마주하는 그녀들을 아무도 보호하지 않아서 지워진다.

현대적인 지음이다: 폭력적이지도, 시끄럽지도, 눈에 띄지도 않는다. 그러나 완전하다.

그래서 매사추세츠는 꼭 필요한 장이다: 진보는 그것을 떠받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해방하지 못한다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미시간

미시간은 산업 미국의 뼈대다. 자동차를 만들어 낸 주, 미국 노동계급이라는 관념 자체를 세운 주—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본 주. 문 닫은 공장, 텅 빈 도시, 버려진 동네, 오염된 물, 중독, 낡은 기반 시설, 깎인 임금.

상승과 쇠퇴와 회복을 모두 겪은 주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내내, 남자들이 더는 버티지 못한 것을 여성들이 견뎌 왔다.

미시간은 여성을 한꺼번에 쓸어 버리지 않는다. 날마다 세 가지 힘으로 그녀들을 소진시킨다: – 무너지는 산업 – 비어 가는 도시 – 모든 것을 오염시키는 환경 문제. 이곳에서 여성의 부재는, 거의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계속 요구하는 망가진 경제의 결과다.

디트로이트의 여성 – 38세

디트로이트는 산업 붕괴의 세계적인 상징이다. 텅 빈 동네, 버려진 집, 허약한 서비스, 예산이 부족한 학교, 역사적인 가난.

이곳의 여성들은 이런 것들과 함께 산다: – 불안정한 일 – 믿을 수 없는 교통 – 널리 퍼진 폭력 – 감당할 수 없는 비용 – 튼튼한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 – 가족에 대한 전적인 책임.

그녀는 일자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일한다: 슈퍼마켓, 클리닉, 콜센터, 레스토랑, 지역 협동조합.

그녀의 부재는 도시적이다: 온 세상에 이름난 도시이지만, 자신을 서 있게 하는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는다.

디트로이트는 자신의 산업의 역사를 기린다. 그 실패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은 기리지 않는다.

플린트의 여성 - 34세

플린트는 나라의 상처다. 몇 년 동안 독이 든 물, 중독된 아이들, 주에게 배신당한 가족들.

이곳의 여성은 그 추문을 직접 겪었다: - 독성 있는 물로 요리했고 - 위험한 물로 아이들을 씻겼고 - 증거를 부정하는 기관들과 싸웠고 - 심각한 위생 문제를 안은 집을 꾸려 갔고 - 공과금을 낼지 생수를 살지 골라야 했다. 그녀의 부재는 환경적이다: 주는 실패했고, 그 대가를 치른 것은 그녀다.

플린트는 그저 비극이 아니다. 미국에서 가난한 여성의 삶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는지 보여 주는 본보기다.

옛 공장 지대의 여성 - 46세

옛날 옛적, 미시간의 공장들은 안정을 주었다: 괜찮은 임금, 집, 가족, 미래.

그러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해외 이전, 로봇화, 폐쇄, 대량 해고.

이곳의 여성들은 재빨리 자신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 슈퍼마켓 - 돌봄 - 청소 - 작은 서비스업 - 파트타임 일 - 쪼개진 교대 근무.

중공업에서 일상의 불안정으로.

그녀의 부재는 경제적이다: 그녀는 안정을 잃었고, 전망을 잃었고, 자동차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 누리던 보호를 잃었다.

농촌의 여성 - 50세

미시간의 농촌은 광대하다: 호수 지대, 숲, 고립된 공동체, 작고 느린 마을들.

이곳의 여성이 마주하는 것: – 혹독한 겨울 – 남편과 아이들을 덮치는 중독 – 멀리 있는 의료 – 계절 일자리 – 고독 – 거의 존재하지 않는 교통.

끊임없이 적응해야 하는 삶이다. 지원도, 성장도, 튼튼한 관계망도 없다. 그녀의 부재는 지리적이다: 그녀는 킬로미터 속으로, 침묵 속으로, 생존의 반복 속으로 사라진다.

에필로그 – 미시간

미시간은 과거의 흥터와 현재의 결과를 함께 짊어진 주다.

여성들은 버틴다: 디트로이트, 플린트, 농촌, 옛 공장 지대, 험한 동네, 곳곳한 가족들.

그러나 버티는 동안 그녀들은 사라진다: – 무너지는 기반 시설 속에서 – 오염된 물속에서 – 불안정한 일자리 속에서 – 반쯤 빈 도시 속에서 – 실패한 경제 속에서.

미시간은 영광스러운 과거를 기린다. 현재의 값은 여성들이 치른다.

성찰 – 미시간

주마다 부재의 다른 형태를 보여 준다. 미시간이 보여 주는 것은 구조의 허약함이 낳은 부재다: 공장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진다. 그리고 공동체가 무너지면, 서 있는 사람은 여성이다—혼자서.

이곳에서 여성의 부재는 일, 아이들, 집, 경제 위기, 환경 재난, 서비스 삭감, 도시의 폭력에 쉬지 않고 매달려 보낸 한평생의 결과다.

더 이상 돌아가지 않으면서도 여성에게는 어쨌든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미국이다. 그래서 이 장은 결정적이다.

미네소타

미네소타는 모두가 좋아하는 주다: 호수, 자연, 질서, 교육, 교양, 긴 겨울, 그리고 “조용한” 삶. 밖에서 보면 그렇게 보인다.

안에서 보면 다르다. 1년의 절반을 얼어붙는 기온 속에서 사는 주, 열려 있는 듯하지만 실은 몹시 닫힌 공동체가 있는 주, 진보적이라고 스스로를 내세우지만 뿌리 깊은 인종 갈등을 감추고 있는 도시들이 있는 주, 당신이 제 기능을 하는 동안에만 작동하는 사회 체제가 있는 주다—그리고 여성들은 언제나 제 기능을 한다.

이곳에서 여성은 혼돈 속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겉으로 보이는 올바름 속으로 사라진다. 침묵 속으로. 차가움 속으로. 노골적인 폭력보다 더 그녀를 짓누르는 “부드러운” 기대 속으로.

미네소타는 공격하지 않는다. 소진시킨다.

이민자 동네의 여성 – 32세

미네소타에는 미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눈에 띄는 이민자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있다: 소말리아인, 몽족, 에티오피아인, 라틴계. 그리고 여성들은 이 공동체들의 심장이다.

그녀들은 두 세계 사이에서 산다: – 출신 문화 – 경직되고 비싼 미국의 시스템. 그녀들이 하는 일: – 요양 보호사 – 청소부 – 급식 노동자 – 베이비시터 – 운전기사 – 문화 매개 노동자.

그녀들은 두 언어를 말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대가족을 떠받친다. 쉬지 않고.

그녀들의 부재는 문화적이고 경제적이다: 그녀들은 공동체의 원동력이지만, 사회는 그녀들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로만 대한다.

그녀들은 숫자로만 보이고,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회복지 일을 하는 여성 - 38세

미네소타는 사회 서비스에 많은 돈을 들인다. 그러나 진짜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여성들이다: 가족 센터에서, 교육 프로젝트에서, 쉼터에서, 공공시설에서.

사람들은 그녀들을 “사회의 천사”라고 부른다. 그녀들은 적게 받고 많이 일하는 노동자다.

감당하기 힘든 사연들, 끊이지 않는 비상사태, 제대로 된 도구 없이 도와야 하는 사람들, 씬 없는 감정 관리.

그녀들의 부재는 직업적이다: 그녀들은 사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떠받치지만, 시스템은 그녀들을 떠받치지 못한다.

긴 겨울의 여성 - 50세

겨울의 미네소타는 다른 행성 같다: 몇 달 동안의 눈, 얼어붙은 도로, 강요된 고립. 내륙 지역과 작은 마을에서 여성들은 이렇게 산다: - 모든 것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서 - 부족한 의료 - 단조로운 일상 - 지원망 없는 집안 문제 - 머릿속까지 파고드는 겨울.

멀리 떨어져 있으면 혼자다. 그리고 미네소타에서 혼자이면, 아무도 보지 못한다.

그녀의 부재는 지리적이다: 그녀는 눈 속으로, 거리 속으로, 침묵 속으로 사라진다.

필수 업종 - 40세

미네소타는 세 개의 기둥 위에 선 주다: - 의료 - 교육 - 식품 유통.

세 업종 모두 여성이 주를 이룬다. 긴 교대 근무, 무거운 책임, 인력 부족, 끊임없는 스트레스.

기온이 영하 25도로 떨어질 때 주를 돌아가게 하는 것은 그녀들이다. 아파도 빠질 수 없는 것도 그녀들이다.

그녀들의 부재는 업무적이다: 그녀들은 멈출 수 없지만, 아무도 그녀들을 보호할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다.

에필로그 – 미네소타

미네소타는 겉은 차갑고 속은 따뜻한 주다. 여성들이 모든 것의 균형을 잡는다: 이민자 공동체, 사회 서비스, 의료, 학교, 고립된 가족.

그녀들의 부재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 흑한 – 침묵 – 인정받지 못하는 책임. 혼돈도, 소음도, 극적인 폭력도 없다. 사람을 소진시키는 고요가 있을 뿐이다.

성찰 – 미네소타

주마다 저마다의 부재의 형태를 보여 준다. 미네소타가 보여 주는 것은 '가장 예의 바른' 부재다: 겉으로 보이는 친절을 통한 지움.

이곳에서는 당신에게 소리치지 않는다. 대놓고 당신을 가로막지 않는다. 당신을 공격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이 혼자 제 기능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나 제 기능을 해야 한다.

미네소타는 여성이 약해서가 아니라, 도움을 받기에는 너무 강해서 보이지 않게 되는 주다.

그래서 이 장은 결정적이다: '좋은' 주에도 의미 있는 부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미시시피

미시시피는 가장 깊은 남부의 심장이다. 아직도 자기 역사의 무게를 짊어진 주다: 노예제, 뿌리 박힌 가난, 인종 분리, 서비스의 부족, 최소한의 기반 시설, 예산이 부족한 교육.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이 세 가지 장애물을 안고 출발한다는 뜻인 곳 가운데 하나다: – 물려받은 가난 – 경직된 가족 안의 역할 – 아

무것도 주지 않는 주. 이곳에서 여성은 어떤 사건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한 번도 그녀들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적 없는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사라진다.

미시시피에서 여성의 부재는 전면적이다: 경제적, 문화적, 건강의, 정치적, 인종적 부재.

여성이 모든 것을 떠받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주다.

삼각주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 40세

미시시피 삼각주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곳 가운데 하나다. 문화와 음악과 역사는 놀라울 만큼 풍부하지만, 정치의 방치와 서비스의 부족과 거대한 불평등에 짓밟혀 있다.

이곳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은 공동체의 중심축이다: - 아이들과 손주들을 키우고 - 허약한 학교에서 일하고 - 가족을 돌보고 - 양로원에서 교대로 일하고 - 집과 시설을 청소하고 - 동네 전체를 떠받친다.

그녀가 없으면 삼각주는 하루 만에 무너질 것이다.

그녀의 부재는 역사적이고 인종적이다: 주는 한 번도 그녀를 무언가의 중심에 놓은 적이 없다. 그녀는 모든 것을 주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더 가난한 농촌 지역의 여성 - 48세

미시시피의 농촌은 광대하다. 아주 작은 마을, 외딴 집, 어디에나 있는 교회, 그리고 거의 존재하지 않는 병원.

여성은 이렇게 산다: - 모든 것에서 몇 마일 떨어져서 - 치료받지 못한 만성 건강 문제 - 최소한의 교통 - 계절 일자리나 불안정한 일 - 손보기 힘든 낡은 집 - 삶의 방식이 되어 버린 고립감.

응급 상황이 생겨도 아무도 제때 오지 않는다.

그녀의 부재는 지리적이다: 그녀는 누가 닿기에는 너무 멀리 살고, 누가 들어 주기에는 너무 가난하다.

가장 낮은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여성 - 33세

미시시피는 이 나라에서 임금이 가장 낮은 주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이 일자리들은 어김없이 여성들의 몫이다.

이곳의 여성이 일하는 곳: - 저가 체인점 - 저가 슈퍼마켓 - 패스트푸드 식당 - 청소 - 환자와 노인의 비공식 돌봄 - 신고되지 않은 베이비시팅.

고된 교대 근무, 권리 없음, 일정한 근무 시간 없음. 그녀는 열심히 일하고, 적게 벌고, 살아남는다.

그녀의 부재는 경제적이다: 그녀의 노동이 없으면 미시시피는 서서히 멈추지만, 주는 그녀를 누구라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처럼 대한다.

종교적 전통에 갇힌 여성 - 55세

미시시피에서 종교는 하나의 요인이 아니다. 하나의 체제다.

이곳의 여성은 이래야 한다: - 어머니여야 하고 - 신앙심이 깊어야 하고 - 가족의 버팀목이어야 하고 - 도덕적인 인물이어야 하고 - 그렇지 않을 때조차 '강해야' 한다.

그녀는 낙인 없이 헤어질 수 없다. 심판을 불러오지 않고는 삶을 바꿀 수 없다. 가족보다 자신을 앞세울 수 없다.

그녀의 부재는 문화적이고 정서적이다: 그녀는 모두를 떠받치도록 길러졌지만, 아무도 그녀를 떠받치지 않는다.

에필로그 - 미시시피

미시시피는 가장 느리게 변하는 주다. 그리고 이 느림 속에서 여성들은 길을 잃는다.

학교와 가게와 교회와 가족과 공동체를 돌아가게 하는 것은 그녀들이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로 붙드는 것도 그녀들이다.

그런데도 그녀들은 한 번도 그녀들을 중심으로 여기지 않는 구조 속으로 사라진다.

이곳의 부재는 사고가 아니다. 전통이다.

성찰 – 미시시피

주마다 부재의 한 형태를 보여 준다. 미시시피가 보여 주는 것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잔인한 부재다.

이곳에서 여성은 그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당연하게 여겨진다. 자연 자원처럼 여겨진다: 언제나 쓸 수 있고, 결코 보호받지 못한다.

미시시피는 냉혹한 진실을 보여 준다: 역사가 변하지 않을 때, 가장 비싼 값을 치르는 것은 여성들이다.

그래서 이 장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다: 주가 여러 세대를 통째로 버리고 여성들에게 그들을 구해 내기를 기대할 때 무엇이 남는지 보여 주기 때문이다.

Ferdinando Frega